

모든 분들께 드리는 매우 중요한 소식: 2025년 5월 30일

영혼아, 악마는 네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가 살아 있는 한 그는 끊임없이 네 주위를 맴돌지만, 네 수호천사 또한 영원히 네 곁에 머물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네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충실하고, 네 힘과 몸과 영혼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결코 그분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멀어지지 않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네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바라는지 아시고, 네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도 보신다. 그분은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그분께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신다. 그분은 너를 염려하시며, 항상 네 곁에 계시고,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에게 신실하시다. 사랑하는 영혼아, 결코 잊지 마라. 그분은 네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너를 사랑하시며, 네 마음속에 살아 계신다. 항상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마땅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마귀는 너에게 해를 끼칠 수 없겠지만, 그는 항상 너를 시험하고 죄로 유혹할 것이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그러므로 고해성사는 매우 중요하다. 기억하십시오, 악마는 고해성사를 싫어합니다. 그는 항상 당신에게 ‘당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전쟁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모든 사람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만이 전쟁을 끝내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라, 영혼아. 사탄은 네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낙원에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항상 너를 다시 자기 곁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오직 네 영혼이 온전히 깨끗할 때만 네가 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악마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되고, 그때는 네가 악마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며, 그 영혼은 축귀 의식이 필요하게 된다.

무언가 일어날 때(불행, 살인, 질병 등), 너는 이렇게 묻는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영혼이 구원받고 해방되어 영생을 얻도록 생명을 단축시키시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시기 때문에 이를 허락하신 것이다. 네가 더 나아가 그분께 속하게 될지, 아니면 더 나빠져 너를 지옥으로 이끄는 악마에게 완전히 속하게 될지 말이다. 전쟁이 닥치면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요나와 니네베 성을 떠올려 보라!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그 도시는 멸망에서 구원받았다.

만약 네가 계속 마귀(교활한 짐승)를 섬기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며 그분을 섬기기를 거부한다면, 너에게는 사랑도 평화도 없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네가 부자이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백만장자), 소유욕이 너를 혼란스럽게 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며, 너는 눈이 멀고 마음속으로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실해야 하며,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특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고,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죄인은 사랑해야 하지만 죄는 미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쟁, 재난, 질병 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부르시면,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에서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성모 마리아님, 당신의 거룩한 하느님의 아들과 함께, 저희와 모든 이에게 당신의 보호와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멘.

추신: 구세주께서는 이 중요한 보고서가 인터넷에 게재되기를 원하십니다.

('hinscheiden'이라는 표현은 '죽음', 즉 영생을 얻기 위해 낙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www.gnadenvolle-gebete.de

www.gnadenvolle-gebete-und-erlebte-wunder.de

www.vater-unser.net

오늘의 성인 - 오를레앙의 요한나 - 잔 다르크

- 2025년 5월 30일

독일 포르바흐, 에르베르스브론 율리아나 에베르트, 베르나르트
코펜하겐